



김기태 감독 눈물의 사퇴

“물러나야 할 때라 판단했다”

박흥식 퓨처스 감독 대행 임명 오늘 대전 한화전에서 지휘봉

“감독직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감사했습니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16일 광주 KT전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 놓는다.

김기태 감독은 16일 KT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독직은 오늘로 마지막이다. KIA를 사랑하는 팬들과 프런트, 선수들, 야구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15일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해왔고, 구단은 속고 끝에 16일 김 감독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기태 감독은 “팀을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고, 그 동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기태 감독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야구밖에 없다. 김기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다.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있었지만 좋은 추억만 간직하길 바란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감사하다. 다들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2014년 10월 KIA 타이거즈 제8대 감독으로 취임한 뒤 2017년 KBO 정규리그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거두는 등 2016년부터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견인했다. 그러나 올 시즌은 최하위에 머무는 등 부진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한편 KIA 타이거즈는 박흥식 퓨처스 감독을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

박 감독 대행은 17일 대전 한화전에서 지휘봉을 잡는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KIA 원투펀치 특명 “위닝시리즈 이끌어라”

17~19일 한화전, 터너·양현종 출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한화전 위닝시리즈에 도전한다. KIA는 17일~19일 대전구장으로 이동해 한화 이글스와 3연전을 벌인다.

현재 KIA는 주중 KT를 만나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결국 최하위 탈출은 커녕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다. 이대로 침몰할지, 반등에 성공할지는 이번 한화전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KIA는 한화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 위닝시리즈를 세운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번 주말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마침 선발 로테이션도 좋다. 터너, 강이준, 양현종이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원투펀치 터너와 양현종이 이번 3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터너는 1승 5패 평균자책점 6.17이다. 시즌 초반 KBO리그 적응 문제로 부진했다가 4월 들어 제 경기력을 되찾았다. 4월 한 달 간 기록은 1승 1패 평균자책점 3.68이다. 29.1이닝 동안 15실점(12자책점)에 그쳤다.

우려되는 점은 5월 치른 NC전과 SK전에서 흔들렸다는 것이다. 강팀인 NC와 SK의 방망이에 터너는 7.1이닝(2경기) 13실점(11자책점)

을 기록하며 2패를 떠안았다. 그래도 불넷을 남발하거나 구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화전 희망을 갖게 한다.

양현종은 역대 최악의 시즌 초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막전부터 승운이 따르지 않는 바람에 1승 7패 평균자책점 5.36을 기록한다. 3월과 4월은 방망이 지원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최고 구속이 나오지 않는 등 컨디션에 이상이 생겨 그의 평균자책점이 6~9점대를 오갔다.

그러나 양현종은 양현종이다. 호랑이 에이스답게 최근 들어 자신의 기량을 완전히 회복했다.

5월 들어 치른 삼성, 두산, KT전에서 모두 호투를 펼쳤다. 삼성전에는 6이닝 1실점(1자책점)을, 두산과 KT전에서는 7이닝 1실점(1자책점)씩을 거두며 건재함을 자랑했다. 이 추세로 간다면 한화전에서도 호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변수가 있다면 타선이다. KIA와 한화 타선은 종잡을 수 없다. 양 팀 모두 타 타율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경기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한화의 경우 팀 타율 9위(0.256)에 머물고 있지만 앞서 열린 키움전에서 득점력을 앞세워 위닝시리즈를 거둘 만큼 활약했다.

KIA가 원투펀치 터너와 양현종을 내세워 위닝시리즈를 거둘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터너



양현종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투어 17·18기 참가자 선착순 모집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 제17·18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팬 만족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과 광주-기아 타이거즈 야구 역사관을 둘러본 뒤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오는 24일(제17기)과 25일(제18기) KT전에 맞춰 각각 진행된다.

일반 팬(17기)과 멤버십 성인 회원(18기)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는 이번 투어의 참가비는 3만 원이며, 참가자는 투어 후 3루석 K7석에서 경기를 관람한다. 또한 기념품으로 KIA 타이거즈 버스 폴백 미니가가 주어진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새단장한 야구 역사관 관람은 물론, 그라운드 및 라커룸(원정팀) 체험, 실내연습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실 견학, 선수단 훈련관, 경기 관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투어는 팬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라커룸과 실내연습장, 웨이트 트레이닝실, 그라운드 등 선수단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어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 모집은 17일(17기)과 20일(18기) 오후 3시부터 각각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선착순 30명 마감이며, 기타 문의는 마케팅팀(070-7686-8043)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광주FC, 12경기 무패 신화 쓸까

20일 광주월드컵서 서울E전 출격 밸런스 축구 앞세워 선두 유지 관심



프로축구 광주FC의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가 12경기 무패행진의 새 역사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이랜드FC와 하나원큐 2019 K리그2 1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광주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이랜드전에서 무패를 이어갈 경우 창단 9년만에 12경기 무패(K리그2 역대 4위)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이전 무패 기록은 11경기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의 기록이다. 당시에는 나상호의 공백(아시아게임 차출)으로 3승 8무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으나 현재는 다르다.

지난 3월부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는 현재 6승 5무 승점 23점으로 2위 부산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득

점 랭킹 1위(9경기 10득점) 펠리페를 선두로 여름, 박정수, 최준혁 등 중원의 유기적인 움직임, 리그 최소실점(6실점)을 이끌고 있는 아솔마토프, 이한도의 잔물수비 등 광주만의 완벽한 밸런스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 삼성과의 FA컵 16강전에서 0-3으로 패했으나 그동안 경기에서 나서지 못한 선수들을 기용하며 적절히 대처했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 또 주전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서울이랜드전은 베스트11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와의 상대전적에서 3승 2무(11득점 3실점)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펠리페와 여름의 득점(2-0)으로 승리하며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다. 서울이랜드 또한 FA컵 16강전에서 2군 선수들을 내세우며 김영광, 쿠치뉴 등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다. 특히 최근 한달간 승리가 없는 만큼 승점에 대한 집중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광주가 서울이랜드를 꺾고 2010년 창단 이래 구단 최다 무패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지난 4일 10라운드 전남전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는 광주FC 선수들 모습.

광주FC 제공

권순우 광주챌린저대회 8강 진출

한국테니스 에이스 권순우(당진시청, 147위)가 올 시즌 챌린저대회 7번째 8강에 진출했다.

권순우는 16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 16강전에서 세계 36위 스키타 유이치(일본)를 상대로 6-4 6-7(5) 6-4로 이기고 8강에 올랐다. 우승을 위해 단 세 경기 남겼다. 이날 경기시간은 2시간 28분.

권순우는 1세트 4대4에서 상대 서비스게임을 브레이크하고 자신의 게임을 지켜 6대4로 깔끔하게 획득했다.

2세트 들어 오랜 랠리 끝에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으나 세트를 놓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 5대2로 승세를 굳히다 스키타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6대4로 마무리했다.

권순우는 이날 스키타를 상대로 11번이나 브레이크 기회를 잡았으나 스키타의 강한 수비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권순우는 2월 방콕과 요코하마, 3월 선전과 장자강, 4월 대만과 서울챌린저에서 각각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렸고 이번 광주챌린저에서도 8강에 안착했다. 권순우는 대만 우통린과 러시아의 스타코프스키 승자와 17일 4강 진출을 가린다. 양생기자 gungulove@srb.co.kr

